

† 마테데스는 체자라는 뜻의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테데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자 되는 것에
마음을 줍니다.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궁극적인 생명을 통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알게 된
신자으로써 어떤 통령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일에 마음을
집중하기를 힘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잠적일
뿐이며 궁극적이지 못함을
잊지 않고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참된 생명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힘든 날일지라도

신윤식

겨우내

양상한 나뭇가지 드러내고
쓸쓸히 홀로 서 있던
설국의 시간
긴 침묵 흐르다가
조금씩 파스하게 번지는
기운 앞에 언 땅 녹아드니
다시 봄날이구나.

밤새 내린 봄비에
톡톡톡 사방에서
새 살 띄우는 소리
산에서는 재잘재잘
새들의 노래 소리 들리니
다시 봄날이구나.

겨울이 흑독하면
봄을 향한 그 마음
더욱 커지듯
눈물 나게 힘든 날이
주님 향한 간절함 더 깊게 하니
힘들다 하여
한숨만 쉬고 있지 말 일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3.17

발행호수 제21권 11호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이어집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유년부나 학생부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대본으로 하여 연극을 하지 않은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내용인 반면에 이 이야기에 대한 이해 또한 그 방향이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7절을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실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에게 자비 베푸는 일을 실천하라는 도덕적 교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교훈적 내용에 은혜를 받았다 하기도 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과연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누가 봐도 본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실천의 능력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자비를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는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30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 가다가”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일오전설교
눅 10:25-37

이웃의 문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 역시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왔다는 것은 인간적 감정과 관계를 모두 초월한 채 다만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는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선을 긋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실천이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실천하자는 도덕적 교훈으로 결론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신 것은 어떤 율법 교사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그 동기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이 질문과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 교사는 진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실천적 문제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은 율법 교사는 이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예수께 그 같은 질문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평소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또 다시 율법을 무시하는 답을 하면 그것을 발미 삼아 곤란에 빠뜨리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생의 길은 오직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영생이 이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든 율법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영생의 길로 제시한다면 유대 사회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바로 이것을 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6절)**라고 반문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신자라면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율법 교사의 생

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보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자신의 실천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실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교사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율법 교사에게 ‘나를 믿으라’ 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 자신을 믿는 것을 율법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예수님 말을 트집 잡고 시비를 걸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를 시험하고자 한 의도가 성공된 것입니다.

율법의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반문하시고 율법 교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7절)**라고 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느 계명이 큰지 묻는 일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도 율법 교사와 같은 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율법 교사의 답은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수많은 규례가 있는데 그 많은 규례들 속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실천의 문제를 끼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규례를 영생을 위한 실천적 규례로 언급한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가치 있는 실천의 행위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8절)**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율법 교사는 또 다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29절)**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의 의도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에게 이 같은 질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다. 이미 그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관찮은 인간임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것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

느냐” (36절)라고 묻고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마 자존심이 상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고 수종 드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갔고, 유대인들이 더러운 존재로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비가 없는 매정한 사람이 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자비를 베푸는 자’ 라고 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율법 교사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때부터 이미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비록 영생의 문제로 질문을 했지만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알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말한 율법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서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웃의 범위를 묻는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의 한계를 어떻게 확정지을 수 있는지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교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웃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을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겨우 그 정도의 실천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으로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그런 수준이겠냐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면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례를 행할 수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 들여서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규범으로 자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율법으로 작용하게 될 뿐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이웃과 원수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웃의 범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강도만난 사람은 자신을 더러운 존재로 여기는 유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이웃에 대한 개념으로 대한다면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도 무리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오직 강도 만난 그 처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기에 자연히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간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제사장, 레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은 같은 동족이기에 일반적인 이웃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서로 이웃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다가면 자신이 귀찮아 질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웃은 인간관계에 의해 고정된 어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동족이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서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율법 교사와 같은 생각임을 알아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를 행하라'는 말씀은 단지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를 도와주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자비를 베푸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쌍함은 그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것처럼,

인간의 실상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죽어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이 불쌍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자비를 알 수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불쌍함에서 예수님의 자비를 알게 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가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죽음에 처한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면 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 되게 해주시면 매일 감사하며 살겠는 마음이 들 수 있고, 병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매일 감사하며 살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 걱정 없이 부요하게 사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육신이 건강한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모습들이 한심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을 보면 그는 당연히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이방인의 신을 섬기는 죄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시편 저자는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오후설교

시 107:1-9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111장 2.24일 설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적과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해도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볼 수 없다면 감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감사한다고 해도 그것은 형식이고 가식일 뿐이며 좋은 일에 대한 잠시 동안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7편에서 이스라엘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2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침략에 의해 그들의 종이 된 처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들의 종이 된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 광야 사막에서 고생을 하는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기적과 인도를 체험했던 사람은 현재에 매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상황에서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저자는 고통과 고생의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리하는 고통의 그 형편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형편에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자가 깨달아야 할 새로운 삶의 세계가 바로 이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선택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통과 힘든 형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에게 함께 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앎으로 인해서 어떤 형편에서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범사에 감사하라’ 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6,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 주께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고통의 형편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겪는 광야에서의 고통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 도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부르짖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10,11절에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는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자들의 죄를 보게 하고 멸망당함을 당연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바벨론에 포로 된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생에게 행하

신 기적으로 말합니다.

107편을 보면 8,15,21,31절에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고통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일로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 저자가 말한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세계에 들어가서 감사를 배우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고통이 자신의 실상이 되어야 하고 그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육신에 병이 들고 하는 일이 실패하고 굶주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고통은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고통은 영원히 사망에 간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을 잊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편안함에 복의 의미를 두게 되지만 세상에서 어떤 삶을 누렸든 모든 인간은 영원한 고통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같은 인간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뭘지에 대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고통과 죄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라는 안식처로 들어가게 하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붙들려 사망으로 끌려가는 죽음의 실상에 대해 눈이 열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큰 은총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일 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매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총의 사건의 결과가 됩니다.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 보고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 즉 구원의 역사로 말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비록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에 있다고 해도 그 또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구원의 일로 바라봄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욕망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에 갇힌 인간의 실상을 알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총이 무엇이고 인자와 선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됨으로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본 문에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산다는 것입니다 (17절). 산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왕을 섬기면 구원 된다는 뜻입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곧 사는 길이라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믿음의 바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같은 현실에 처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의 목에 줄과 멍에를 메고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다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바벨론으로 빼앗긴 성전의 기구 역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의 말은 모두 거짓 예언이니까 듣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예언에 더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유다 백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신들을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기구 또한 속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하나님보다는 거짓 선지자

수요일설교
렘 27:16-22

**바벨론을
섬겨라**

(69장 2.20일 설교)

의 하나님을 더 믿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유다를 도우십니다. 하지만 도우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에 빠질 때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도우심으로 여긴다면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산다는 말은 유다 백성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부인하고 싶은 것이 그들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은 유다는 망하고 바벨론은 흥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는 망하게 하고 이방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의 말에 반발하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희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대한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도우신다는 생각에 갇혀 있기 되면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벨론을 섬기라는 선지자의 말은 유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보기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기에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보게 될 때 유다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방향으로 베풀어질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도우심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안다는 것은 죄의 무게 앞에 무릎 꿇게 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진심으로 죄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알게 되면 자신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에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

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입니다.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보지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세상의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때 비로소 죄를 알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고통으로 밀어 넣으시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마음을 두는 유다 되게 하기 위한 일이기에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이야말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성전의 기구까지 모두 바벨론에 빼앗기게 하신 이유가 뭘겠습니까? 유다가 성전에서 행했던 제사 행위가 그들을 살리는 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수없이 제사 의식을 행했지만 그들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만 쌓여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당연히 도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 한 유다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신자가 이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성부터 버려져야 합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의지나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음에 두지 않은 채 죄의 길로만 가고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도우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높게 되는 것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91장
교 독 : 85(1요4장)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458장
성 경 : 눅 10:25-37
말 씬 : 이웃의 문제(5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18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3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83장
기 도 : 임수희 집사
찬 송 : 419장
성 경 : 시 110:1-7
말 씬 : 영원한 제사장(114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84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73강)

■ 교회소식 ■

1. 31일 부활주일에 세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조규현 장로 오후 - 조순자 집사

이단 ②

계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고 말한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냄 받은 사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한 사자는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인간도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는 사자는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만회는 보냄 받은 사자, 즉 그가 말하는 ‘대언의 사자’를 자신으로 지칭하기에 결국 이만회에게로 가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언의 사자라고 믿는 이만회가 일으킨 신천지를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나라라고 하고, 자칭 신약의 약속의 목자인 이만회를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만회는 스스로를 대언의 사자로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세운 세상의 목자(현대 교회의 목사)에게는 계시 말씀을 주시지 않았고 오직 자신에게만 비밀의 계시를 주셨다고 한다. 또한 세상 목자는 하나님께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신학교에서 사람의 말을 배워 가르치기에 세상 말을 하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만회의 말이 아닌 다른 목사의 말은 무조건 듣지 말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이만회는 성경의 문맥과 의미는 무시한 채 이만회 자신과 신천지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은 마치 성경이 이만회와 신천지를 증거하는 것처럼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마 7:7-8절에서 말 씀하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는 단어를 신천지를 찾고 이만회 앞에 나아와 진리의 계시를 구하면 받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회를 만난 것을 곧 구원의 주를 만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천지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믿기에 신천지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회와 신천지로 여기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신천지가 구원의 통로가 돼 버리고 예수가 주가 아니라 이만회가 주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이런 말에 그들은 ‘우리가 언제 이만회 총재를 예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라고 반박한다. 물론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글을 봐도 이만회를 예수로 지칭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이만회에게로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만회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재림에 대한 이들의 주장 또한 황당하다. 이들은 계 14장에서 말하는 십사만 사천의 수를 문자대로 해석하여 구원 받을 사람의 수를 십사만 사천이라고 하고, 그들을 신천지에 등록한 사람으로 지칭한다. 그리고 신천지의 수가 십사만 사천이 되면 예수님과 옛날 순교자의 영이 이만회와 신천지 교인들의 육신에 재림한다고 한다. 예수님의 영은 이만회에게로 베드로나 다른 여러 순교자의 영은 십사만 사천의 신천지 교인들에게로 재림한다는 것이다. 이 일이 있게 되면 신천지 교인은 영생의 존재가 되고 세상은 신천지 인이 주관하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이다.